No.9

Japan GITISS
Game Industry Total Information Service System

JAPAN GAME NEWS

- 겅호 온라인 MMORPG '탄트라', 정식 서비스 개시
- Master of Epic 서비스 장애 발생, 이용권 사용 기간 연장 및 가격인하
- '가이악스', 일본 국내외를 무대로 온라인 게임 개발·운용 지원 사업 전개
- 보스텍, 판권 문제로 '은하 영웅 전설 VII'의 정식 서비스 중지
- '베르아일'오픈 베타 서비스 기간 연장, 정식 서비스 개시일은 연기
- 일본 PC 게임 랭킹 (2005년 4월12일 집계)

● 겅호 온라인 MMORPG '탄트라', 정식 서비스 개시

겅호 온라인 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RPG'탄트라'의 정식 서비스를 4월 27일부터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에서도 아이템 과금 방식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탄트라는 일본 국내 MMORPG 최초로 아이템 과금 방식을 채택하여, 월 기본 요금이 무료이다.

유료로 제공되는'프리미엄 아이템'으로는, 아슈람(타 타이틀의 길드, 클랜과 같은)의 문장을 변경할 수 있는 '아슈람 문장 변경'이나, 캐릭터 육성시 파라미터 할당을 변경 할 수 있는 '스킬·체크라 초기화', 머리 모양 등 외관을 변경할 수 있는 '미용실'등이 있으며, 서비스 초기에 40종류의 프리미엄 아이템이 라인 업 될 예정이다. 각 아이템의 상세 가격 등은 추후 발표 예정.

이와 같은 유료 아이템은 공식 사이트에서 'Shop Point'를 구입하여 결재한다. 아이템 가격은 20엔(불꽃)부터 2500엔(파르바티의 복주머니)까지 폭이 넓다. 월간 구매 한도액에 대해서는 정식 서비스 개시 후 상태를 보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식 서비스 일정
· 4월 25일(월)10：00 정식 서비스 준비를 위해 서비스 일시 중단
· 4월 27일(수)12：00 Shop Point 판매 개시
· 4월 27일(수)15：00 정식 서비스 개시

● Master of Epic 서비스 장애 발생, 이용권 사용 기간 연장 및 가격인하

BB서브는 4월 1일(금)~4월 18일(월)오전 9시까지 MMORPG 'Master of Epic'이용 티켓을 구입한 플레이어를 대상으로 '이용권의 사용 기간 연장' 및 '이용권 가격인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Master of Epic'의 정식 서비스 개시와 함께 접속수가 급증, 이용권을 구입할 수 없거나, 구입했더라도 제대로 게임을 즐길 수 없는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번 서비스 장애로 인해 4월 2일(토) 예정이었던 스토리 이벤트 '소년 윤의 이야기~Southern Gate Keeper 탄생 비화~'가 4월 6일(수)로 연기되었고, 이에 따라 BB서브는 게임 이용권의 기간 연장과 가격인하를 실시하게 되었다.

■ 대상자
4월 1일(금)~4월 18일(월)오전9:00까지, 'Master of Epic'의 이용권을 구입한 유저

■ 상세 내용
○ WebMoney로 기간형 이용권(30일, 90일, 180일, 360일)을 구입한 모든 유저
- 이용권 유효기간을 일률적으로 7일간 연장.
※ 연장 처리는 4월 22일(금) 예정.

○ 신용카드 결제로 무기한 이용권을 구입한 유저
- 6월분 요금 지불 시, 350엔(50엔/일, 7일간 상당) 할인
※ 4,5월분을 정리해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인하는 6월분에 적용될 예정

BB서브는 '본건에 대해 직원 모두가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발표, 향후 대책이 주목된다.

● '가이악스', 일본 국내외를 무대로 온라인 게임 개발·운용 지원 사업 전개

주식회사 가이악스는 일본 국내외를 무대로 다양한 온라인 게임 지원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지원 사업은 크게 '국내 온라인 게임의 운용·개발 지원', '국내외 개발사 전용 해외/국내 사업 전개 지원'두 가지로 나뉜다.

온라인 게임의 운용 지원을 위해 가이악스는 레비뉴 쉐어 형태로 서버 시스템 구축·유지, 유저 커뮤니티 구축·운영, 결제 시스템 제공, ISP/포털 소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발 지원 부문으로는, 게임 엔진이나 모델링·모션 데이터 등의 자사 미들웨어나, 부하 테스트, 서버 감시·관리 툴 등의 제공, 비즈니스 모델 구축 지원, 아이템·아바타 과금 시스템, 넷 카페/ISP전용의 영업 업무 등을 실시한다고 한다.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의 게임 프로듀서, 크리에이터를 소개하는 업무도 실시한다. 국내외 개발사 전용 해외·국내 사업 전개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개발사를 아시아·북미 등의 해외 퍼블리셔에게 소개하거나, 일본 현지화 작업, 국내 퍼블리셔 소개 등의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타이틀에 따라서는 가이악스가 일본 내 퍼블리싱을 맡을 수도 있다.

특히 한국 개발사 경우, 가이악스의 한국 지사인 가이악스 코리아를 통해 일본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캐쥬얼 게임 개발사와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일본 현지화 사업 전개시 중계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한다.

가이악스는 현재 일본 국내에서 온라인 게임을 비롯한 각종 커뮤니티 서비스의 기획·개발·운영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으로, MMORPG 'M2~신갑연의~', '스톤 에이지'의 일본 현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보스텍, 판권문제로 '은하 영웅 전설 VII'의 정식 서비스 중지

보스텍 주식회사는 현재 정식 서비스 중인 MMO 시뮬레이션게임 '은하 영웅 전설 VII'의 운영을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당분간 게임 서버는 계속 가동할 예정이지만 4월 13일자로 유저 서포트 및 서버 유지 업무를 종료할 계획. 이에 따라 보스텍은 현재 공식 사이트를 통해 유료 회원에게 사용요금을 환불하고 있다.

'은하 영웅 전설 VII'의 운영을 정지하는 것은, 게임의 직접적인 모티브라고 할 수 있는 소설 '은하 영웅 전설'의 저작권을 가진 회사와 판권 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

저작권자 측은 사과문을 통해 '보스텍 측이 무단으로 상표를 등록하려 하였고, 외국 기업에게 마음대로 판권을 양도하는 등, 계약 및 라이센시(licensee)로서의 신의를 위배했을 뿐 아니라, 본 게임의 유저들에게도 서비스를 태만히 하여 재삼 경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며, 판권 계약 해지 결정이 불가피한 것이었음을 강조했다.

무단 상표 등록, 유저 서비스 태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외국 기업에 허가 없이 판권을 양도'했다는 것은 보스텍이 중국의 샨다 네트워크, 한국의 플레너스와 계약을 체결한 것을 말한다.

'은하 영웅 전설 VII'의 경우 일본에서 개발 후, 현지화를 통해 각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으로 보스텍이 '은하 영웅 전설 VII'의 라이센스를 완전히 상실하면서, 사실상 해외 전개가 무산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은하 영웅 전설 VII'은 당분간 계속 운영될 방침이지만, '은하 영웅 전설'에 대한 라이센스는 이미 3월 22일 해지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언제 운영이 종료될지 모르는 상황.

이제까지 판권 문제로 서비스가 중지된 MMORPG는 전례가 없다.

'은하 영웅 전설 VII'이라는 높은 네임밸류를 자랑하는 타이틀을 통해 비약을 꿈꾸던 보스텍사에게는 안된 일이지만, 이번 사건은 온라인 게임화한 라이센스물의 해외 사업 전개에 있어 작지 않은 파문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 '베르아일'오픈 베타 서비스 기간 연장, 정식 서비스 개시일은 연기

BB서브는 3월 25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던 MMORPG '베르아일'의 오픈 베타 서비스 기간을 연장하고, 패키지 발매와 정식 서비스 개시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베르아일은 4월 22일(금)까지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실시하고, 4월 25일(월)부터 패키지판을 발매, 4월 27일(수)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게임 퀄리티를 한층 더 향상시키고 운영 기획을 재검토하기 위해' 오픈 베타 서비스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패키지판의 발매와 정식 서비스도 연기 되었다.

정확한 오픈 베타 서비스 기간과, 패키지판 발매일, 정식 서비스 개시일은 아직 '미정'.

또한 이번 오픈 베타 서비스의 연장 기간 동안, 아직 실시되지 않았던 '결혼 시스템'이나 '신들의 가호를 받게 되는 섹트 시스템'등 새로운 시스템도 함께 테스트할 예정이라고 한다.

서비스 스케줄이 발표될 때마다 '이 스케줄로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의 소리가 높아가던 베르아일. 그 염려가 현실이 된 이번 발표는, 정식 서비스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사람에게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일이 계속되지 않도록 이번 연장 기간 동안에는 확실히 퀄리티를 높이고 그 결과를 수용하여 매끄러운 정식 서비스가 개시되기를 기대한다.

● 일본내 PC 게임 (팩케이지) 순위 → 2004년 4월 12일 집계

순위	타이틀명	발매원
1	A7 열차로 고!	사이버 프론트
2	위자드리	IRI 마스 & 테크놀러지
3	DOOM 3	사이버 프론트
4	울티마 게임타임 30	EA
5	플레이 온라인 파이널 판타지 XI 프로만시아의 주박(呪縛) 올인원	스퀘어 에닉스
6	미스트 **IV**	키즈 스테이션
7	울티마 온라인 무검 천지 업그레이드 판	EA
8	대항해 시대 온라인 트라이얼 팩	코에이
9	진 삼국무쌍 3	코가도 스튜디오
10	푸른 창공의 네오스피아	EA
11	울티마 게임타임 90	EA
12	울티마 게이타임 180	EA
13	네오 아트라스 2 - VOYAGE TO PC EVOLUTION -	키즈 스테이션
14	대항해 시대 4 - PORTO ESTADO -	소스 넥스트
15	노부나가의 야망 온라인 (비룡의 장)	코에이
16	파이널 판타지 XI 엔트리 디스크2005	스퀘어 에닉스
17	삼국지 **X** With 파워업 킷	코에이
18	심 씨티 4 디럭스	EA
19	울티마 온라인 무검 천지	EA
20	판타지 스타 온라인 블루 버스트(Blue Burst) 에피소드 IV 초회한정판	세가